

호남 첫 농아인 야구단 '광주타이거즈'

“KIA처럼 명문팀 만들어 지역민에 기쁨 선사”

“KIA 타이거즈처럼 명문팀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지난 14일 창단식을 하고 정식출범한 호남지역 최초의 농아인 야구팀 '광주 타이거즈 농아인 야구단(단장 정영동)'의 포부다.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농아인 야구팀 광주 타이거즈 야구단(단장 정영동)은 이날 곧바로 사회인 야구팀 '뽀부립스'와의 광주 베이스볼 토요 루키리그 첫 경기를 치르며 그라운드에 첫 발을 내디뎠다.

11월 전국대회 좋은 성적 낼 것

광주 타이거즈는 첫 경기에서 1-12로 6회 콜드패를 당했지만 일반인들과의 당당히 승부를 통해 프로야구의 명문 KIA 타이거즈처럼 호남을 대표하는 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타이거즈를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베이스볼리그를 후원하고 있는 광주시 한의사회는 광주 타이거즈를 위해 헬멧을 지원했다. 광주 베이스볼리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



광주타이거즈 농아인 야구단이 지난 14일 창단식 직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락영 대표도 11월 초 열리는 전국농아인 체육대회를 대비해 감독 겸 코치를 자원, 명문팀 조련에 합류했다.

정락영 대표는 “처음 리그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람들의 선입관도 있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걱정을 했다”며 “첫

경기에서 1-12로 대패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도 있고, 기본적인 투수력과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아 좋은 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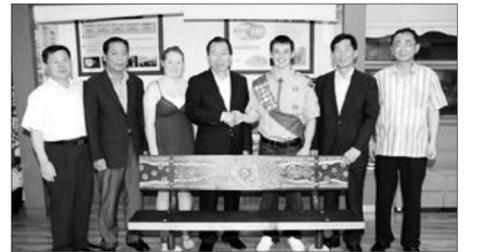
목포에서도 창단 준비중

국내 농아인 야구는 지난 2002년 충주성심농학교 야구단 창단과 함께 시작됐으며, 충주성심의 전국고교야구대회 참가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2개팀을 비롯해 경기, 충북, 충남, 부산, 대구 등에 13개 성인팀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광주에서 가장 먼저 농아인 야구팀이 출범했고 목포에서도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

팀 숫자가 증가하면서 농아인 야구대회도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2007년 처음으로 전국농아인야구대회가 시작된 이후 올해로 4회 대회가 열렸고, 2008년에는 잠실구장에서 대한농아인야구협회 주최의 '제 1회 서울국제농아인야구대회'도 개최됐다. /김여울기자 wool@

美 두발시 '우정벤처' 장흥군에 기증



장흥군(군수 이명훈)과 국제 우호도시인 미국 두발시가 추진하는 2010년도 학생교류사업의 참가자 오스틴 콘츠(시더크레스트고교 10년·오른쪽에서 세번째) 학생이 양 도시의 우정과 화합을 상징하는 '벤처'를 제작해 군에 전달했다. (장흥군 제공)

바르게살기 서구형, 태극기 달아주기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형협의회(회장 김기동) 회원 80여명은 지난 15일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경유하는 차량과 화합동 주택에 태극기 달아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제공>

강진 다문화가정 4쌍 전통 혼례식



강진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4쌍이 최근 '강진청자축제'행사에서 전통 혼례식을 올렸다. <강진군 제공>

명성황후 추정 세밀화 공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일제에 시해당한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여성상을 그린 세밀화가 공개됐다. 전남대 부설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재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된 일간지 '노보브레즈냐' 1895년 10월 21일자에 실린 명성황후 스케치 사진을 16일 공개했다.

이 스케치 사진은 가로 5cm·세로 8cm 크기에, 사진 설명글(캡션)에 '시해된 조선의 공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연구단이 공개한 이 그림은 중국식 머리 모양과 의상에 얼굴은 서구형 미인으로 당시 조선시대 여인상(像)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예술제 최고상 최현호 베를린 콩쿠르 피아노 2위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인 피아니스트 최현호(서울대 기악과 3년)씨가 최근 열린 베를린 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했다. 최씨는 국가별 예선을 거쳐 최근 베를린에서 막을 내린 제3회 베를린 국제음악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경연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수상으로 'Winner's concert' 무대에 섰던 최씨는 내년에는 주 최측의 초청으로 열리는 'Rising star' 음악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예술고 음악과를 수석졸업한 최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제5회 호남



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KBS한전음악콩쿠르 은상, 한국리스트콩쿠르 1위 등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최씨는 11월 6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금호 영아티스트콘서트에 참여하며 12월 20일에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금호주니어콘서트(독주회)를 통해 지역 음악애호가들을 만난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는 아시아 민주주의 성지”

5·18묘지 방문 아시아인권학교 학생들

제7회 아시아 인권학교 참가자들이 16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 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태국 등 14개국 21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중항쟁추모탑 앞에서 헌화·분향한 뒤 묘지관리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1시간 가량 묘역을 둘러보며 5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들은 5·18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이렇게 역동적인 줄 미처 몰랐고 짧은 기간에 민주화를 이뤄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5·18 정신, 한국의 민주화 발전은 많은 국가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그레고리 미시하라 클라렌스(45)는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얻은 광주가 아시아 여러 나라와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배운 5월 정신을 자국 내에서 실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는 아시아 인권학교 참가자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들은 16~26일까지 10일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18과 지역 문화운동' '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운동' '개발과 인권, 여성 인권의 과거와 현재' 등 5·18 민중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배운다.

김국웅씨 납매 전남대 발전기금 2000만원 기부

전남대학교는 김국웅(69·전남대 전 총동창회장) (주)무등 대표이사와의 사촌 누나인 김영애(82) 여사가 최근 대학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자신의 출신학교인 법과대학에 1995년부터 지금까지 총 4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기탁, 후배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사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자라면서 유달리 사이가 좋았고, 무척 따랐던 분이다”고 김 여사를



김국웅 대표이사

김영애 여사

소개하며 “누님과 함께 여성에 뜻 깊고 가치 있는 일을 한 번 하자는 생각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무안군

◇4급 승진 ▲기업도시건설지원단 단장 김갑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희철

◆5급 승진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개발과장 최경문 ▲해양수산과장 나상필 ▲의회사무과전문위원 김성훈

▲현경면장 이성범 ▲봉탄면장 김인상

◇4급 정보 ▲기획실장 박병석

◇5급 정보 ▲민원봉사과장 김성택 ▲관광문화과장 김경모 ▲사회복지과장 임정호 ▲건설과장 김준식 ▲경제정책과장 임이수 ▲지역개발과장 진상열 ▲재난관리과장 정영진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고용석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현 ▲도시개발사업소 박성근 ▲무안읍장 노춘만 ▲일로읍장 박성열 ▲청계면장 유학선 ▲광운면장 하승래

◆전남개발공사

◇3급 승진 ▲홍보감사팀장 김대준 ▲용지보상팀장 노기승 ◇4급 승진 ▲재무회계팀 과장 김성수 ▲지역개발팀 과장 최현석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김영희씨 장남 대석(사법연수원생)군 김태영(란체스터 왕자)·최명자씨 장녀 명문(서울 방배초교사)양=21일(토) 오후 2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사카이어홀)

동창·동문회

▲수도방위사령부(수경사) 제30경비단, 제1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임 및 모집=21일(토) 오후 6시30분 광주 상무지구 동해해물탕. 062-373-9218, 010-2274-6400(기우성 인사회장).

종친회

▲가리광산구 종친회(회장 김명호) 월례회=20일(금) 오전 11시 종

친회관 2층 대회의실. 062-944-1951.

알림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좌=21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양택, 음택, 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복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장 제시(책자무료제공). 011-609-8117, 062-670-2161.

▲프르네 학습증진센터링 저소득층 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심적저하, 교육관계, 점서장애, 게임중독 등.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 번영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메뉴얼, 특허번역, 논문초록 등 전문번역실 운영. 062-431-4788.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요급 등 이론과 현장 제시(책자무료제공). 011-609-8117, 062-670-2161.

모집

▲클라리넷 & 색소폰 회원 모집=30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8시 광주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 회원 모집=30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4시30분 광주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처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 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분. 011-666-066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경우·재선·보연·재민·창복 씨 모친상. 김자철 씨 빙모상 발인: 8월18일(수)8시. 김지: 장흥군장흥읍 선영. 연락처: 250-4409.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임=김기인(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운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전일찬).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

생 모집=홍패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미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지원협회 지회 모임=전남 시·군 지회(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음

▲한정의씨 별세 박태규·홍규·양

남씨 모친상=발인 18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최영두씨 별세 인우·진오씨 부친상=발인 18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철순씨 별세 영일(조선대학교)·형백((유)신영산업)·영단·중순·순단부 부친상=발인 18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금순씨 별세 윤철환·석환·수환·봉환·중환·경순·영순씨 모친상=발인 1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故 윤동규 님(남/87세). 故 박정순 님(여/84세). 故 박정순 님(여/88세).